예술과 문학의 이해 레포트

패러디된 예술작품과 그것의 원작에 대한 비교

모나리자(레오나르도 다빈치, 1503~1506e)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렵지 않게 최후의 만찬으로 소묘에 있어서의 정확성과 화면의 구성을 통한 조화를 구현해 내었다.

모나리자는 이보다 더 진보한 작품으로 모나리자를 볼 때면 마치 인물속에 영혼이 들어있는 듯한 인상, 그리고

무엇인가 아련한 느낌을 준다. 자연을 자연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단지 정확한 소묘를 조화로운 구성에 담아내는 것

만큼이나 시대의 새로운 문제로 드러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바로 예술작품이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을 줄 때 그것은 기술로써 완성되는 감동이 아닌

예술가가 담아낸 어떠한 혼의 결과라고 인식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예술작품이 감정에 일으키는 효과는, 특히 미술에서는 거의 기술적으로 의도된 부분이 많다.

예술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기술과 당대의 시대정신 모두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빈치의 미술은 미술과 종교와 분리되기 시작한 이후에 나온 것인데

중세시대 종교적 미술이 스토리텔링 즉, 성경의 복음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 것과 달리

르네상스 이후의 미술은 점차 조화와 자연의 재현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푸마토는 그 흐름에서 자연스러운 자연을 그려내기 위해 다빈치가 고안한 기법으로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 속으로 뒤섞여 들어가게 만들어 무엇인가 상상할 여지를 남겨놓는

희미한 윤곽선과 부드러운 색체를 가리킨다. 그것을 통해 다빈치는 마치 영혼을 담아놓은 듯한 그림을 그린 것이다.

L.H.O.O.Q (마르셀 뒤샹, 1919)

이집트 미술에서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미술이 표현할 수 있는 범주는 점차 넓어져왔고,

수 천년 동안 굳어져왔던, 사람들의 생각에 고정되어있던 관념이었던,

미술은 현실의 시각 세계와 관련있어야 한다는 개념의 범주를 모두 채워왔다.

따라서 그 범주의 확장이라는 미술의 시대적 발전이라는 역사관으로 보았을 때

20세기 초 이루어져왔던 아방가르드 운동은 필연적인 것 이었다.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모나리자에 전통미술의 권위를 비유하고

이상적인 미의 상징이었던 그것의 성격을 다분히 의도적이게 성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시 말해 일상세계에 격하시킴으로써 아방가르드 운동의 중요한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과 같은 당대의 혁신적인 미술가들로부터 미술작품은 단 한번의 주목받음으로 관객에게 어떠한 정신적인 씨앗이든지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가지게 된 것이다.